

# 비문법적 실어증의 형태-통사론적 분석\*

## A morpho-syntactic analysis of agrammatic aphasia in Korean

김 영 주\*\*  
Young-joo Kim

**요약** 이 논문에서는 뇌졸중으로 인한 Broca 유형의 실어증 환자가 회복 초기와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발화하는 서술어의 논항 구조적 속성이 정상 언어 집단의 서술어 분포와 어떻게 다르며, 또 한 편으로는 전도 실어증 환자의 서술어 분포와는 어떻게 다른지 세 환자와, 조건이 비슷한 정상인의 자유 발화 산출 자료를 분석하여 비교한다. Broca 유형 실어증 환자가 발화하는 서술어 중에서 비대격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언어간 비교해 본 결과, 영어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계사가 아닌 비대격 동사에 심한 어려움을 겪어 거의 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Kegl 1995), 한국어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영어의 비계사 비대격 구문에서는 d-구조와 s-구조 사이에서 동사에 상대적인 논항 이동이 일어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격 부여라는 동기로 유발되는 그러한 논항 이동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공허하기(vacuous) 때문에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제안을 한다.

**주제어** 실어증, 서술어, 논항 구조, 비대격 동사

**Abstract** The argument-structure distributions of predicates in the speech of two Broca-type aphasic patients and one Conduction-type patient are compared with both matched controls and each other on the basis of narrative production data. Whereas English-speaking agrammatics have been reported to have difficulties producing noncopular unaccusative predicates (Kegl 1995), Korean-speaking agrammatics are found not to have particular difficulties with unaccusative predicates. On the assumption that agrammatics lack specific syntactic knowledge for the processing of displaced arguments from their lexically specified positions, it is proposed that unaccusatives in Korean do not involve the displacement of arguments for Case-theoretic reasons or involve a vacuous movement, if any.

**Keywords** aphasia, predicates, argument structure, unaccusatives

### 1. 서론

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어권에서 “非文法的 失語症(agrammatic aphasia 혹은 agrammatism)”으로 분류되는 실어증 환자의 언어가 서술어의 형태-통사적

측면에서 어떠한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고, 영어권에서의 실어증에 관한 연구 결과와 비교하는 것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두뇌 손상으로 인한 언어 장애인 실어증 중에서도 뇌졸중(Cerebral Vascular Accident)으로 인한 Broca 유형의 운동성 실어증(motor aphasia) 환자가 회복 초기와 회복이 진행됨에 따라 발화하는 서술어의 논항 구조적 속성이 정상 언어 집단의 서술어 분포와 어떻게 다르며, 또 한편으로는 전도(Conduction) 실어증 환자가 사용하는 서술어와는 분포에 있어서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고자 한다.

\* 이 논문은 1996학년도 한국 학술진흥 재단의 신진 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인지과학 논평자 두 분의 조언에 감사드린다.

\*\*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주소: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 72-1  
E-mail: yjkim@wow.hongik.ac.kr

歐美에서는 1861년 Paul Broca가 브로카 실어증을 보고하고 1873년에 Karl Wernicke가 베르니케 실어증을 보고한 이래 실어증에 대한 신경학적, 언어 병리학적 연구가 계속되어 왔고, 1960년대 부터는 Geschwind, Goodglass등의 학자들에 의해 보다 언어학적인 관점이 도입되었으며 현재는 Zurif, Grodzinsky, Caplan, Kegl등을 비롯한 많은 신경언어학자들이 이론적으로 보다 첨예화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한 연구를 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실어증이라는 병리적인 현상을 일차적 자료로 다루면서 언어학 이론을 분석의 도구로 삼아, 표면적으로 쉽게 나타나지 않는 언어학적 규칙성을 찾아내고자 하는 목표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그들이 사용하는 자료는 印歐語에 국한되어 있어서, 보다 언어 보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한국어처럼 다른 문법 구조를 가진 언어권의 실어증에 대한 언어학적 분석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한국어와 상당히 비슷한 형태-통사적 구조를 가진 일본어의 비문법적 실어증에 관한 연구(Sasanuma et al., Menn & Obler 1990)도 보고된 바가 있어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실어증이 신경학자와 언어 병리학자의 연구 영역으로 한정되어 있었으며, 실어증에 대한 언어학적 관심이 최근에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어증에 관한 언어학적 분석은 실제로 보고된 것이 아직까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공백을 메우려는 첫 시도중의 하나로서, 아직까지는 예비적인 성격을 띤다.

## 2. 본론

### 2.1. 비문법적 실어증

비문법적 실어증이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는 실어증 중에서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을 보이는 실어증세의 언어 현상을 가리키는 용어이다(Tissot et al. 1973): (1) 담화에서 접속사, 관사, 전치사, 대명사, 조동사, 계사 등 소위 기능어가 많이 빠진다; (2) 동사 대신에 명사를 많이 쓴다; (3) 동사 어미가 생략되어 부정형이 많이 사용된다; (4) 성, 수, 인칭의 일치가 사라지고 격조사가 있는 언어에서는 주격형이 많이 나타난다(Jakobson 1963); (5) 내포문을 포함한 복문은 드물게 나타난다.

위와 같은 비문법적 실어증의 증상은 불어, 독어, 러시아어 등에서 놀랄 정도로 비슷하게 나타나며,

명사와 동사의 어미 변화가 덜한 영어에서는 의존 형태소의 손실이 비교적 덜 두드러진다. 비문법적 실어증의 증상에는 개별 언어간의 차이도 많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고 있다. 예를 들면, Grodzinsky(1984)는 대부분 모음 변화로 나타나는 히브리어의 동사 어미 변화와 목적격 조사는 그대로 보존된다고 보고하였으며, 핀란드어와 폴란드어를 사용하는 환자들은 격에 관한 오류를 거의 저지르지 않는다고 한다(Menn & Obler, 1990:1388).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에 이해 능력은 산출 능력보다 상당히 앞서나, 이해면에 있어서도 완전하지는 않으며, 특히 표면 어순이 d-구조 어순과 다른 문장에 대하여 어려움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2.2. 실어증 언어의 서술어 논항 구조 연구

Kegl(1995)에서는 두 명의 영어권 실어증 환자가 사용한 동사의 분포를 논항 구조에 따라 분류하고 그것을 정상인의 동사 사용과 비교한 후, 실어증 환자들의 말에서는 통사적 d-구조와 s-구조 사이에 논항의 이동이 필요한 동사들이 정상인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현저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비슷하게 Grodzinsky(1990)는 역시 논항의 이동을 요하는 영어의 피동문에 대해서 실어증 환자들은 심한 어려움을 겪는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어 실어증 환자의 말에 나타나는 서술어(동사와 형용사)의 분포를 일차적으로 분석하여, 영어 실어증의 연구 결과와 같은 현상이 한국어 실어증 자료에도 나타나는지 비교하고자 한다. 특히 한국어는 서술어 중심의 언어이므로 한국어 동사의 논항 구조는 언어학자들의 관심 있는 연구 대상중의 하나이다.

#### 2.2.1. 外的 논항(external argument)의 유무

서술어의 논항 구조를 분류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서술어의 논항 구조에 外的 논항 (external argument)이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다. External argument가 있는 논항 구조를 가진 서술어에는 일반적인 타동사(예: 먹다, 읽다, 때리다, 출다 등)와 자발적인 행동을 나타내는 자동사(뛰다, 걷다, 웃다, 울다, 선다 등 즉 "unergative verbs")가 속하고, 반면에 external argument가 없이 internal argument

만 가지고 있는 서술어에는 상황의 변화를 나타내는 動的 비대격 동사((-stative) unaccusative verbs) (죽다, 피다, 떨어지다, 무너지다, 뜨다 등)와 靜的 비대격 동사(+stative) unaccusative verbs)인 서술 형용사(예쁘다, 길다, 짧다, 무섭다, 좋다 등), 그리고 수동형 동사(물리다, 잡히다, 먹히다 등)가 있다. 계사(이다, 아니다)와 존재 동사(있다, 없다, 살다, 낳다 등)도 비대격 동사에 속한다.

### 2.2.2. 비대격 구문

영어의 단순 비대격 구문(예: *The train arrived*)나 비대격 동사+PP 구문(예: *The ivy clung to wall*), 또는 타동사의 수동형 서술어는 외적 논항이 결여된 논항 구조를 가지며, 이 구문들은 모두 d-구조에서 s-구조로 mapping 되는 데 있어서 동일한 절차를 밟는 것으로 분석된다(Chomsky 1981). 즉 이들은 모 논항 구조에서 직접 목적어를 취하지만 외적 논항은 결여되어서 *e arrive NP*와 같은 d-구조를 가진다 Burzio의 일반화(1986)에 따라 비대격 동사나 수동 동사들은 격(Case) 부여 능력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직접 목적어 자리에 대격을 부여할 수 없고, 따라서 Case Filter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s-구조에서는 NP항이 Case를 받을 수 있는 주어 자리로 이동하여야 하는 것이다. 마침 주어 자리를 미리 차지하고 있는 외적 논항이 없기 때문에 주어 자리는 可用하며, 그리로 이동한 NP는 굴절(Inflection)에 의해서 주(nominative Case)을 부여받게 되는 것이다. 요약하면, Move-alpha라는 규칙의 적용에 의해서 d-구조상 목적어가 s-구조상의 주어가 되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과정을 밟음으로써 모든 문장에는 표면 구조상의 주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Extended Project Principle (Chomsky 1981) 또한 충족되는 것이다.

영어의 계사 구문은 비대격 동사 구문에 속하며, *measure* 구문과 마찬가지로 obligatory adjunct를 가진다. 다음의 모든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은 obligatory adjunct이며, 주어 명사구는 d-구조상의 목적어가 이동해 온 것이다(Kegl 1995):

*The chicken weighs t three pounds*

*The book costs t ten dollars*

*The rug measured t 39 feet.*

*Mary is t a doctor*

하지만 영어의 계사 구문에는 다른 비대격 동사 구문과 다른 점이 하나 있다. 즉 계사 구문에서 be는

본동사가 아니라 auxiliary라는 것이다. 여기서 be를 조동사로 보는 근거는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동사에는 의문문에서 주어-조동사 도치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반면 조동사에는 적용된다(\**Ran John home?* 對 *Is Mary a doctor?*). (2) 동사는 Tag 의문문에 쓰이지 않는 반면에 조동사는 쓰인다(\**John kissed Mary, kissn't he?* 對 *Mary is a genius, isn't she?*). (3) 동사는 Neg와 축약되지 않는 반면 조동사는 축약된다(\**She broken't the cup* 對 *John isn't the murderer*). 이와 같은 근거로 Kegl(1995)은 계사 구문에서 be는 조동사이며 이러한 구문에는 음운적으로 실현되지 않은 동사, 즉 "zero verb"가 있다고 본다. D-구조와 s-구조 사이에서 동사와 관련된 어 논항의 상대적인 위치가 변하는 경우에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다면, "zero verb"가 있는 계사 구문에서는 논항의 이동이 동사의 위치와 관련된 한에서는 공허한(vacuous) 것이기 때문에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들이 별다른 어려움을 갖지 않으리라는 예측을 할 수 있을 것이다(Kegl 1995).

한국어의 비대격 구문에서도 d-구조와 s-구조 사이의 논항 이동이 상정되어야 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한국어에는 구조적으로 격 부여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 default로 주어지는 형태론적 격(morphological case)이 있기 때문에 영어를 비롯한 다른 많은 언어에서와 같이 격의 이유로 논항이 이동해야 한다고 상정하는 것은 동기가 부족하다는 주장이 있었다(Kim 1990). 게다가 설사 논항 이동이 일어난다고 해도 (1)에서 볼 수 있듯이 verb-final language의 특성상 한국어에서는 그러한 이동이 d-구조와 s-구조사이의 어순 도치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다.

(1) a. 영어 d-구조: *e arrived (the package)*

↑  
s-구조: *the package arrived*

b. 한국어 d-구조: *e 소포 왔다*

↑  
s-구조: *소포(가) 왔다*

한국어와 영어의 실어증 연구 결과를 비교하는 데 있어서도 언어간의 이러한 구조적인 차이를 고려하여 경험적 결과에 대하여 올바른 해석을 하게 될 것이다. 즉, 영어를 사용하는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들이 어순 도치를 초래하는 논항 이동이 개입된다는 이

유 때문에 계사가 아닌 비대격 동사 구문에 어려움을 겪는다면, 한국어권에서 같은 유형의 실어증 환자들은 그러한 동사 구문에 특별한 어려움을 겪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가능할 것이다. 왜냐 하면 한국어에서의 비대격 동사에서는 (계사와 비계사를 막론하고) 논항 이동이 없거나, 혹은 있다 하더라도 어순 도치를 초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 3. 실험

#### 3.1. 연구 대상 1)

연구 대상 - 연구 대상은 신경과 외래 환자와 입원 환자들 중에서 선정된 6명의 운동성 실어증(motor aphasia) 환자들과 1명의 전도 실어증(conduction aphasia) 환자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첫째 유형의 환자들 중에서 두 명과 둘째 유형의 환자 한 명을 선정하여 이들에 대한 실험 결과를 논의하고자 한다. 이들 각자와 성별, 나이, 학력이 비슷한 기준 대상(control)을 정하여 같은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이 환자들이 기준 집단과 어떻게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분석하고, 또 한 편으로는 유형간 비교를 하였다.

사례 1 - Broca 실어증: YHS로 표기되는 이 환자는 37세의 중증 학력을 가진 남성으로서, 특기할 만한 질병 없이 건강하게 지내오던 중 1996년 여름 갑작스러운 언어장애의 출현으로 응급실로 내원하게 되었다. 이 환자는 양손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로, 글씨 쓸 때와 식사시에는 오른 손을 사용하고, 칼질, 가위질 및 공던지기를 할 때에는 왼 손을 사용한다고 밝혔다. 뇌 컴퓨터 단층촬영(CT) 결과, 좌측 측두엽(left temporal lobe)과 좌측 미상핵(caudate nucleus)에 경색이 있었고, MRI 촬영 결과 좌측 미상(caudate), 後島 (posterior insula)와 후선조체-내포(posterior striato-capsule)에 경색, 그리고 좌측 뇌실 주변 白質(periventricular white matter)에 혈전으로 인한 변화가 있었다.

YHS는 발병 후 3일 지난 후 실시된 Western Aphasia Battery 한국판 검사(K-WAB test) 결과, 심한 Broca 유형의 실어증으로 평가되었다. 검사자와

의 대화에 있어서 환자는 자신의 이름 외에는 전혀 기능적인 발화 진행을 하지 못하였고, 되풀이나 응얼 거림이 관찰되었으며 유창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반면 청각적 이해력은 1단어/쉬운 단문 수준상에 있었다. 읽는 능력은 비교적 좋은 반면 자발적인 쓰기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였다. 뇌 손상 부위가 비교적 넓고 뇌피질(cortical)과 뇌피질하(subcortical) 층위 모두에서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부분이 손상되어 회복에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었다.

사례 2 - Broca 실어증: JMJ로 표기되는 이 환자는 53세의 가정 주부인 국졸 여성으로서, 오른손잡이였다. 비교적 건강하게 지내다가 1997년 가을 갑자기 말을 못하게 되어 내원하였다. 검사상, 산출면에서 운동성 실어증의 소견을 보였으며 이해면에서는 간단한 질문에 대한 대답이 가능하였다. CT결과 좌측 전두엽의 다초점부위(multifocal area)에 亞急性의 경색(subacute infarction)이 관찰되었다. K-WAB 검사 결과 중간 정도(moderate severity)의 Broca 실어증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사례 3 - 전도 실어증: SJM으로 표기되는 이 환자는 15세의 여중생으로서, 1996년 5월 외출을 하였다 귀가한 후 헛소리를 하였고, 이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응급실로 들어왔다. 뇌정동맥 기형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고 7월에 퇴원하였으며 9월부터 언어 치료를 시작하였다. 이 환자의 언어 양상은 매우 유창한 편이나 상황에 부적절한 내용의 말을 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청각적 언어 이해력 및 단어 유출 능력이 낮은 양상을 보였다. 발병 초기에는 심한 Wernicke 유형으로 진단되었으나, 본 실험이 처음 수행될 당시의 K-WAB 검사에서는 전도 실어증으로 평가되었다.

#### 3.2. 연구 방법

환자들에게 회복 초기와 그 후 3개월에 세 가지 전래 동화에 대하여 자유 발화를 하도록 하였다. 널리 알려진 전래 동화 중 선정된 이야기는 "홍부와 놀부", "개미와 배짱이", 그리고 "금도끼 은도끼"로, 피 실험자의 기억을 되살리고 가능하면 많이 발화할 수 있도록 글자를 지운 그림책을 제공하였다. 환자들이 자유롭게 그림책을 넘겨 가면서 이야기하도록 지시하였다.

기준 집단은 환자들 각자와 성별, 나이, 교육 정도, 직업 등에 있어서 비슷한 수준의 짝으로 선정하여, 병리학적, 정신적 장애가 없는 사람으로 하였다.

1) 이 세 환자의 선정과 자료 수집에 있어서 삼성 의료원 신경과 김향희 박사님의 참여와 도움이 없었더라면 본 연구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또한 본 논문을 위하여 그 자료를 사용하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자료 수집과 분석을 도와 준 김사함에게도 감사한다.

실험자는 피실험자의 발화 도중 가능하면 끼여들지 않고, 자연스럽게 자발적인 발화가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였다. 피실험자들의 발화는 녹음기/비디오 카메라로 기록하였다.

### 3.3. 연구 결과

자료 분석 - 발화된 자료들을 모두 전사하여 환자들이 첫 실험에서, 그리고 3개월 후에 발화한 서술어들이 각 期에 따라, 그리고 기준 집단과 비교했을 때 외적 논항의 유무에 있어서, 그리고 외적 논항이 없는 서술어의 경우에는 계사인지 계사가 아닌 비대격 동사 (noncopular unaccusative verbs)인지에 따라 분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1〉 한국어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이 발화한 서술어의 논항 구조적 분포

	[-external argument]		[+external argument]	uncodable
	copular	noncopular unaccusatives		
YHS1 (Broca)	1%	32%	64%	3%
YHS 2	3%	35%	62%	0%
Control AHJ	5%	35%	60%	0%
JMJ1(Broca)	6%	14%	65%	14%
JMJ 2	7%	33%	59%	1%
Control BYS	6%	35%	59%	0%
SJM1 (Conduction)	6%	27%	61%	7%
SJM 2	6%	36%	57%	1%
Control KPL	6%	33%	61%	0%

이를 영어 실어증 환자에게서 나타나는 동사의 논항 구조적 분포와 비교해 보기 위해서 Kegl(1995)이 보고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영어 실어증 환자와 정상인이 발화한 서술어의 논항 구조적 분포(Kegl 1995)

	(-external argument)		(+external argument)	uncodable & fragmentary
	copular	noncopular unacc.		
agrammatic				
FOK-early	24%	0%	41%	35%
FOK-late	18%	3%	57%	22%
control SC	22%	22%	56%	0%

〈표 1〉을 보듯이 한국어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 전도 실어증인 SJM 초기와 후기, 그리고 그에 대한 control을 비교해 보면 사용한 서술어의 외적 논항 유무에 있어서 놀라울 정도로 같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Broca 실어증의 경우에도 control과 그다지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표 1〉과 〈표 2〉를 비교하였을 때 특기할 만한 차이점은 계사가 아닌 비대격 동사의 비율이다.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영어 실어증 환자 FOK가 noncopular unaccusative 동사를 사용한 것이 초기에는 전무하며 후기에도 3%에 불과한 반면 한국어 실어증 환자들의 경우 noncopular unaccusative 동사에만 특기할 만한 어려움을 보이는 않아, control의 경우와 근접한 분포도를 나타냈다.

### 4. 결론

Broca 유형 실어증 환자가 발화하는 서술어 중에서 비대격 동사가 차지하는 비율을 언어간 비교해 본 결과, 영어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계사가 아닌 비대격 동사에 심한 어려움을 겪어 거의 산출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국어 실어증 환자의 경우에는 별다른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의 차이에 대하여 몇 가지 다른 해석이 가능할 수 있겠으나, 본 논문에서는 비대격 구조의 언어간 차이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였다. 즉 영어의 noncopular unaccusative 구문에서는 d-구조와 s-구조 사이에서 동사에 상대적인 논항 이동이 일어나는 데 반해, 한국어에서는 격 부여라는 동기로 유발되는 그러한 논항 이동이 없거나, 설사 있더라도 공허하기(vacuous) 때문에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들이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리라는 제안을 하였다. 사실 이는 비단 비대격 구문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한국어의 격 부여 체계 전체에 대한 논의의 일환으로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다룬 실험 자료는 제한된 것으로, 앞으로 보다 많은 비문법적 실어증 환자의 자료가 고려되었을 때 실어증 언어에 대한 보다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나리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특정한 서술어를 발화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선택되거나 연출된 사진이나 그림, 혹은 비디오의 장면들을 보여주고 그 내용을 묘사하도록 한 실험도 수행한 바 있으므로 이에 대한 분석도 추후 이루어질 예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어권 실어증 환자의 말에 나타

나는 서술어의 분포가 논항 구조적 측면에서 어떤 특성을 보이는지 분석하였으며, 연구 대상은 뇌졸중(CVA)으로 인한 실어증 환자 중에서 어느 정도 발화 능력이 있거나 회복되기 시작한 운동성 실어증(motor aphasia) 환자들을 중심으로 하되, 유형 간의 비교를 위해서 Wernicke 유형에서 발견된 전도 실어증 환자도 포함시켰다. 이러한 연구는 궁극적으로 한국어 실어증의 언어학적 특성을 다른 언어권에서의 연구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이미 알려져 있는 여러 유형의 실어증에 나타나는 언어 병리학적 특성 중에서 어느 것이 언어 보편적이고 어느 것이 개별 언어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것인지 밝혀 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연구는 실어증 환자의 말이 정상인의 말과 체계적으로 다른 점을 추출해냄으로써 인간의 언어 능력에 대한 언어학적 가설을 시험하고 보편 이론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데 기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본 논문은 그러한 방향으로의 첫 출발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으며, 앞으로 논의되어야 할 많은 경험적, 이론적 문제를 제기한다는 데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1] Burzio, L. (1986). *Italian Syntax*. Dordrecht: Reidel.
- [2] Caplan, D. (1985). Syntactic and semantic structures in agrammatism. In M.-L. Kean, ed., *Agrammatism*. New York: Academic Press.
- [3] Chomsky, N. (1981). *Lectures on Government and Binding*. Dordrecht: Foris.
- [4] Grodzinsky, Y. (1985). On the interaction between linguistics and neuropsychology: A review of Noam Chomsky. On the generative enterprise. *Brain and Language* 26, 185-195.
- [5] Grodzinsky, Y. (1988). Syntactic representation in agrammatism: The case of proposition. *Language and Speech* 31, 115-134.
- [6] Grodzinsky, Y. (1989). Agrammatic comprehension of relative clauses. *Brain and Language* 31, 480-499.
- [7] Grodzinsky, Y. (1990). *Theoretical perspectives on language deficits*. Cambridge, MA: The MIT Press.
- [8] Kean, M.-L., ed. (1985). *Agrammatism*. New York: Academic Press.
- [9] Kegl, J. (1995). Levels of representation and units of access relevant to agrammatism. *Brain and Language* 50, 151-200.
- [10] Kim, Y. (1991). *The syntax and semantics of Korean case: The interaction between lexical and syntactic levels of representation*,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 [11] Menn, L., and L. K. Obler., ed. (1990). *Agrammatic aphasia: A cross-language narrative sourcebook*. Amsterdam: Benjamins.
- [12] Obler, L. K., and L. Menn., ed. (1982). *Exceptional language and linguistics*. New York: Academic Press.
- [13] Saffran, E. M., R. S. Berndt, and M. F. Schwartz (1989). The quantitative analysis of agrammatic production: Procedure and data. *Brain and Language* 37, 440-479.